

重電機器의 需給動向

이 우 공
 통상산업부 전기공업과장

1. 서론

최근의 국제환경은 電機工業이 전자공업, 기계공업 등과 믹스되면서 電氣工業인지, 電子工業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기술개발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도 그 한계가 불분명한 것이 오늘날의 전기공업이다. 게다가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들에게 과거에는 대가만 지불하면 쉽게 기술을 이전해 주던 것을 최근에는 낮은 기술 이외에는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고도성장국에는 技術移轉을 철저히 기피하고 있어, 電氣分野 技術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이나 신제품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초고압기거나 대용량기기 및 첨단기기 등에 대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커지고 있는 반면에 아시안 개발도상국들과는 기술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 우리나라 電機工業이 위협을 받고 있다.

메이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미나 유럽은 기업의 대

형화와 다국적화 및 M&A로 생산원가 절감, 시장의 선점화 및 기업간의 제휴, 특허의 공유, 공동브랜드, 위탁판매, 부품의 공동조달, 기술의 공동개발 등으로 경쟁의 우위권확보와 기업의 世界化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전문성보다는 기업의 多樣化, 국제경쟁보다는 내수경쟁, 기술개발보다는 기술도입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투자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공동 기술개발과 기업간의 상호 위탁판매, 부품의 공유, 공동브랜드 사용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착실한 성장과 선진국들의 현지공장 신·증설로 우리나라를 추월하려 하고 있어 더욱더 우리나라 電機工業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업계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국제 기술개발 동향이나 신상품개발 및 상품의 패션화 등 경쟁력에 관련된 시장정보에 매우 어두우며, 또한 언어장벽과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시장개척활동이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물류비 상승, 국제적인 시험·검사능력 부족 등으로 국제경쟁력 확보는 물론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電機工業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수출감소는 물론 내수시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2. 需給動向

가. 需給總括

국내 電機工業 시장규모는 '92년에 145억불이던 것이 '96년에는 241억불로 늘어났으며 '97년에는 255억불로 예상되어 5년 사이에 1.75배나 늘어났고 연평균 11.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총시장규모 중 內需市場의 규모는 '92년에는 117억불로 전체의 81.2%를 점유하였으나 '96년에는 193억불로 전체의 80%를 점유하였고, '97년에는 201억불로 전체의 78.8%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어 內需市場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內需依存度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수출은 '92년에 27억불로 전체의 18.8%이던 것이 '96년에는 48억불로 전체의 20%로 늘어났다. '97년에는 54억불로 전체의 21.2%로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출 신장세가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내수시장의 위존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電機工業 전체의 伸張率도 '90년까지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하여 왔으며 '92년부터 '95년까지는 연평균 12.0%의 높은 성장을 하여 왔으나, '96년의 6.8% 성장에 이어 '97년에도 5.9%의 아주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電機工業의 성장둔화가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신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기는 상당

기간 어려운 전망이다(표 1 참조).

'96년의 전체 電機工業 중 重電機器(중전기기와 전선)가 차지하는 비중은 41.4%인 100억불(중전기기만 27.5%인 66억불)이었고, 가정용전기기기 비중은 26.0%인 63억불이었으며, 그 다음이 계측기기로 21.9%인 53억불, 의료기기도 7.5%인 18억불을 차지하고 있고 조명기기는 3.1%인 7억 5000만불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97년에는 가정용전기기기와 의료기기 및 계측기기의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에 重電機器의 비중이 1.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우리나라 電機工業의 需給推移

(단위 : 백만불, %)

구분	'92	'93	'94	'95	'96	'97 전망	연평균증가율 (92~97)	
수요	내수	11,750	12,976	15,284	18,110	19,255	20,090	11.3
	수출	2,724	3,050	3,584	4,422	4,827	5,409	14.7
계	14,474	16,026	18,868	22,532	24,082	25,499	12.0	
공급	생산	10,095	11,148	12,607	14,214	15,896	17,133	11.2
	수입	4,379	4,879	6,261	8,138	8,186	8,366	13.8
수출비율	27.0	27.4	28.4	31.1	30.0	31.0		
수입의존율	43.4	43.8	49.7	57.3	42.0	41.0		

주 : 1. 수출비율 = 수출/생산, 수입의존율 = 수입/내수
2. 상기 금액은 모듈 및 적산전력장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96 전기공업 및 전자공업 통계, '97 통산부자료

〈표 2〉 分野別 市場規模('96~'97)

(단위 : 백만불, %)

구분	총규모		중전기		가전기		계측기		의료기기		조명기기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시장규모	24,082	25,499	9,978	10,906	6,269	6,604	5,273	5,353	1,810	1,856	752	780
비중	100	100	41.4	42.8	26.0	25.9	21.9	21.0	7.5	7.3	3.1	3.1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97), 전기공업 및 전자공업 통계('97), 무역진흥공사 수출입통계('97), 통산산업부 자료('97)

생산규모는 '97년에 총 171억불로 예상되는데 그중 重電機器가 76억불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가정용 전기기기가 62억불로 36.1%, 계측기기가 21억불로 12.3%, 의료기기는 7억불로 4.3% 그리고 조명기기는 5억불로 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규모에 있어서도 重電機器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에 다른 전기기기들은 감소를 보이고 있어 중전기기 산업의 성장률이 다른 산업의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分野別 生産規模('96~'97)

(단위 : 백만불, %)

구분	총생산		중전기기		가전기기		계측기기		의료기기		조명기기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96	'97
생산규모	15,895	17,133	6,751	7,576	5,901	6,194	2,016	2,102	703	737	524	524
비중	100	100	42.5	44.2	37.1	36.1	12.7	12.3	4.4	4.3	3.3	3.1

자료 : 표 2와 동일

'97년의 중전기기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電線을 제외한 중전기기의 '97 총규모는 '96년보다 8.3%가 신장한 66억불로 예상되며 그중 內需가 총규모의 80.6%인 58억불로 전년보다 5.7%가 증가되고, 생산은 총

〈표 4〉 重電機器 需給動向

(단위 : 백만불, %)

구분	구분	'92	'93	'94	'95	'96	'97	연평균증가율 ('92~'97)
		수요	내수	3,686	3,904	4,405	4,963	
	수출	538	604	743	957	1,154	1,390	20.9
	계	4,224	4,508	5,148	5,920	6,621	7,169	11.2
공급	생산	2,495	2,748	2,963	3,100	3,690	4,139	10.7
	수입	1,729	1,760	2,185	2,820	2,931	3,030	11.9

자료 : 표 2와 동일

규모의 57.7%인 41억불로 전년보다 12.2%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이 내수의 71.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97년도의 수출은 14억불로 전년보다 20.5%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20%보다 다소 낮으며, 수출은 생산의 33.6%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은 30억불로 전년보다 3.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1.9%보다 아주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무역수지개선이 기대된다(표 4 참조).

수입증가율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수출의 2.2배나 되고 있어 '97년에도 '96년과 비슷한 16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둔화에 따른 설비투자의 감소로 내수증가율도 둔화되어 우리나라 중전기기업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輸出入 動向

(1) 輸出動向

重電機器의 '96 총수출액은 11억 5400만불이었으며,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변압기로 4억 1700만불이 수출되어 전체 수출액의 36%를 점유하였고, 다음이 변환장치로 2억 200만불이 수출되어 전체 수출액의 17.5%를 점유하였으며, 배전제어장치가 1억 4800만불로 12.8%, 전동기가 5600만불, 발전기가 5500만불 그리고 전기용접기가 5200만불이 수출되었고 차단기도 4500만불이 수출되었다.

'97년 상반기의 품목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수출실적은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4.3%가 감소하였는데 수출비중이 가장 큰 변압기가 1억 9100만불이 수출

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9%인 1600만불이 감소되었고 두번째로 수출비중이 큰 변환장치가 8400만불이 수출되어 전년 같은기간보다 13.7%인 1300만불이 감소되었으며, 배전제어장치도 5800만불이 수출되어 전년 같은기간보다 28.2%인 2300만불이 감소되어 이 3개 품목이 전년 같은기간보다 9%의 수출감소를 가져왔다.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품목은 애자류로 74%가 감소되었으며 전기로 및 가열기가 56.5% 감소되고 전압조정기가 18%, 전기로도 13%가 감소되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인 품목은 발전기가 4300만불이 수출되어 전년도 같은기간보다 61.2%인 1700만불이 증가하였고 전동기도 3300만불이 수출되어 4.4%인 900만불이 증가하였으며 개폐기 및 부분품이 26.7%인 200만불, 전동공구가 16.7%인 300만불, 차단기가 15.8%인 200만불이 증가하였다(표 5 참조).

'96년 重電機器의 국별 수출실적은 총수출액 11억 5000만불의 20.3%인 2억 3400만불이 일본에 수출되었고 중국에는 총수출의 15.9%인 1억 8300만불이 수출되었으며, 미국에는 총수출의 14.3%인 1억 6400만불이 수출되었다. 또 홍콩에 9800만불, 말레이시아에 9400만불, EU에 3600만불, 싱가포르에 2600만불이 수출되었고 대만에는 2400만불이 수출되었다.

'97년 상반기중의 국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총 수출액은 5억 3600만불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6.2%가 감소하였으며, 수출이 가장 많은 일본은 전년 동기대비 15.3%가 감소한 1억 500만불이 수출되었고 중국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10.1%가 감소한 8000만불을 수출하였으며 미국에도 9.9%가 감소한 7100만불을 수출하였다. 또 홍콩이 17%가 감소한 3900만불, 말레이시아가 28.2% 감소한 3600만불, 싱가포르가 43.8% 감소한 800만불, 대만도 1.0% 감소한 1300만불이 수출되었고 EU만이 전년동기와 같은 3000만불이 수출되었다(표 6 참조).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아시아 국가의 경제성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현지공장의 신·증설로 값싼 제품들을 생산하여 自國需要를 충족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제품이 이들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輸入動向

우리나라 電氣機器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92년에서 '96년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수입신장률은 18.8%로 수출신장률 15.4%보다 3.4%나 더 높다.

重電機器는 '92년부터 '95년까지 16.3%의 輸入신

〈표 5〉 重電機器의 品目別 輸出實績

(단위 : 백만불)

구분	변압기	변환장치	배전제어	전동기	발전기	용접기	차단기	전동공구	전압조정기	개폐기	전극·자석	전기로	애자류	기타	계
'96 총액	417	202	148	56	55	52	45	39	32	13	6	12	3	73	1,154
'96.1~6 (점유율)	191 (35.6)	84 (15.7)	58 (10.8)	33 (6.2)	43 (8.0)	25 (4.7)	15 (2.8)	20 (3.7)	11 (2.0)	8 (1.5)	3 (0.5)	3 (0.5)	1 (0.2)	41 (7.6)	536 (100)
'96동기대비 증가율	-7.9	-13.7	-28.2	4.4	61.2	-13.4	15.8	16.7	-18.0	26.7	-2.6	-56.5	-74.0	13.4	-4.3

자료 : 표 2와 동일

〈표 6〉 重電機器의 國別 輸出實績

(단위 : 백만불)

국 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EU	싱가포르	대만	기타	계
'96	234	184	164	98	94	64	26	24	264	1,154
'96.1~6 (점유율)	105 (19.6)	80 (14.9)	71 (13.2)	39 (7.3)	36 (6.7)	30 (5.6)	8 (1.5)	13 (2.4)	128 (23.9)	536 (100)
'96동기대비 증가율	-15.3	-10.1	-9.9	-17.0	-28.2	1.0	-42.8	-1.0	4.3	-6.2

자료 : 표 2와 동일

장률을 보였으나 '96년에는 국내 산업시설 투자감소로 輸入이 줄어들어 3.9%의 비교적 낮은 수입증가를 보이고 있다.

'96년에는 重電機器의 수입액은 '95년보다 3.9% 증가한 29억불이었으며, 電氣機器분야 수입 중 두 번째로 수입이 많았으나 수입신장률은 가장 낮았는데, 重電機器 중 '96년에 수입이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기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및 가열기 등의 순으로 수입이 되었다. 특히 '96년에는 전기로 및 가열기가 수입이 다소 줄어든 반면에 발전기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특징인데 발전기의 수입은 '95년보다 30%가 증가한 8100만불이나 늘어났으나 반면에 전기로 및 가열기는 '95년보다 40%가 감소한 1억6900만불의 수입이 감소되었다(표 7 참조).

'97년도 상반기의 수입실적을 보면 전년도 같은기간 보다 1% 증가한 4.9%의 수입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전년도에 수입증가율이 높았던 발전기, 차단기, 변환

장치, 전기용접기 등의 수입이 크게 감소된 반면에 배전제어장치, 전기로 및 가열기, 애자류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각 품목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배전제어장치가 '95년보다 2.6% 증가한 4억 6900만불이 수입되었고 다음이 전동기로 '95년보다 11.7% 증가한 3억 7000만불이 수입되었으며 발전기는 30% 증가한 3억 4900만불, 전기용접기는 1.2% 감소한 3억 1600만불, 변압기가 8.4% 증가한 3억 100만불이 수입되어 이 5개 품목이 전체 수입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은 전기로 및 가열기로 '95년보다 67.1%가 감소한 2억 5200만불이 수입되었고 변환장치가 43.1% 증가한 1억 9500만불, 전극 및 자석이 2.9% 증가한 1억 8800만불, 그외에 전동공구가 7200만불, 차단기가 7000만불, 애자류가 3800만불, 개폐기가 2600만불 그리고 전압조정기도 1900만불이 수입되었다(표 8 참조).

重電機器의 주요 수입국은 일본, 미국, 중국, EU, 대만, 싱가포르 등이며 '96년도 국별 수입액은 일본에서 총수입의 44.3%인 12억 9800만불이 수입되었으며, EU에서는 총수입의 21.8%인 6억 3900만불이 수입되었고 미국에도 총수입의 21%인 6억 1600만불, 중국에서 1억 1100만불, 대만에서 3600만불,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2100만불이 수입되었다.

〈표 7〉 重電機器의 年度別 輸入現況

(단위 : 백만불, %)

구분	'92	'93	'94	'95	'96	'97.1~6
'92	1,729	1,760	2,184	2,820	2,931	1,496
증가율	3.1	1.8	24.1	29.1	3.9	4.9

자료 : 표 2와 동일

〈표 8〉 重電機器의 品目別 輸入實績('96)

(단위 : 백만불)

품 목	배 전 제어장치	전동기	발전기	전 기 용접기	변압기	전기로 가열기	변환 장치	전극 및 자석	애자류	전동 공구	차단기	개폐기·부분품	전 압 조정기	기타	계
'96	469	370	349	316	301	252	195	188	38	72	70	26	19	265	2,931
'96.1~6 (점유율)	259 (17.3)	161 (10.8)	176 (11.8)	168 (11.2)	143 (9.5)	127 (8.5)	80 (5.3)	108 (9.0)	55 (3.7)	35 (2.3)	31 (2.1)	13 (0.9)	8 (0.5)	129 (8.6)	1,496 (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4.7	-8.9	-5.7	1.6	0.6	38.5	-16.5	9.0	135.8	12.0	-12.4	-2.8	10.4	-4.8	4.4

자료 : 표 2와 동일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으로 '95년 대비 71.4%가 증가하였고, 다음이 EU가 206%, 미국이 9.1%, 대만이 3.1% 증가하였다.

수입이 감소한 국가는 싱가포르가 42.0%가 감소하였고 일본도 9.6%가 감소하였다.

일본이 비록 수입은 감소하였지만 수입액은 여전히 월등히 많아서 두번째로 수입이 많은 EU의 2배나 되며 일본, 미국, EU가 전체 수입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지난해에 71.4%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65.8%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업계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98년에는 중국이 두번째 수입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저가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중전기산업계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거세게 밀려오는 중국제품과 국내업체들의 중국 현지 생산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 변압기가 74.7%, 변환장치가 170.8%, 전동기가 30.4%, 전극 및 자석이 300% 증가하였고, 전기용접기, 전기로 및 가열기 등도 크게 증가하였다(표 10 참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한 품목은 전기로 및 가열기가 전년대비 59.1%가 감소하였고 배전제어장치

〈표 9〉 重電機器의 國別 輸入實績

(단위 : 백만불)

품 목	일본	EU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기타	계
'96	1,298	639	616	111	36	22	209	2,931
'97.1~6 (점유율)	631 (42.2)	277 (18.5)	334 (22.3)	77 (5.1)	16 (1.1)	12 (0.8)	128 (8.5)	1,496 (100)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0.7	-9.6	4.8	65.8	-12.9	21.8	31.1	4.4

자료 : 표 2와 동일

〈표 10〉 中國에서 輸入이 증가한 品目('96)

(단위 : 백만불)

구 분	변압기	전동기	변환장치	전극 및 자석	전압조정기	전기로 및 가열기
'95(A)	35	18	5	1	0	0
'96(B)	61	23	13	4	1	1.5
증감(A-B)	26	5	8	3	1	1.5
증가율(%)	74.7	30.4	170.8	300	126	148

가 3.6%, 개폐기가 18.5% 감소하였으며 전극 및 자석과 전압조정기도 감소하였다(표 11 참조).

'97년 상반기중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중 총 수입량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4.4%가 증가한 14억 9600만불이 수입되었다.

수입이 가장 많은 품목은 배전제어장치로 전년 같은

〈표 11〉 日本에서 輸入이 감소한 品目('96)

(단위 : 백만불)

구분	전기로 및 가열기	배전제어장치	개폐기	전극 및 자석	전압조정기
'95(A)	285	213	17	127	6
'96(B)	117	205	14	126	5
증감(A-B)	168	8	3	1	1
증감율(%)	-59.1	-3.6	-18.5	-1.1	-16.7

기간보다 14.7%가 증가한 2억 5900만불이 수입되었고 다음이 발전기로 전년 동기대비 5.7%가 감소한 1억 7600만불이 수입되었으며, 전기용접기는 1.6%가 증가한 1억 6800만불, 전동기는 8.9%가 감소한 1억 6100만불이 수입되었고 변압기는 0.6%가 증가한 1억 4300만불, 전기로 및 가열기는 38.5%가 증가한 1억 2700만불, 전극 및 자석은 9%가 증가한 1억 800만불이 수입되었다.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애자류로 135.8%가 증가하였고 전기로 및 가열기가 38.5%, 배전제어장치가 14.7% 그리고 전동공구가 12% 증가하였다.

수입이 감소된 품목을 보면 변환장치가 16.5% 감소

〈표 12〉 輸入 增加 品目('97. 1~6)

(단위 : 백만불, %)

품목	변환장치	전기로 가열기	배전제어장치	전동공구	전압조정기	전극 및 자석	전기용접기
금액	55	127	259	35	8	108	168
증가율	135.8	38.5	14.7	12.0	10.4	9.0	1.6

〈표 13〉 輸入 減少 品目

(단위 : 백만불, %)

품목	변환장치	차단기	전동기	발전기	개폐기 부분품	기타	계
금액	80	31	161	176	13	129	1,496
증가율	-16.5	-12.4	-8.9	-5.7	-2.8	-4.8	4.4

자료 : 표 2와 동일

되었고 차단기가 12.4%, 전동기가 8.9% 그리고 발전기가 5.7% 감소하였다(표 12~13 참조).

3. 결론

우리나라 중전기산업은 '90년대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착실한 성장을 하여 왔으나 '9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생산이 증가되지 못하고 수출도 활로를 찾지 못한채 수입이 늘어만 가는 추세로 흐르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국내 업체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제품 검사제도도 개선하여 우리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나, 우리 업체들이 내수시장에 너무 안주하고 또 국내외에서 과다덤핑 수주경쟁으로 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우리 업계 스스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기공업진흥회를 중심으로 한 각 분야별 조직체를 구성하여 수입 중전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수출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과 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지사를 통한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체제도 구축하여 국제경쟁에 대처해 가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업체가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需給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얼마가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수입이 얼마나 되며, 수출에 대한 전망과 수입이 미치는 영향 등 업계의 品目別, 國別 輸出入에 관한 분석과 輸出促進과 輸入代替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업체가 생산 및 수출입과 관련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보유한 자료를 적극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